“물질적 부자 아닌 심리적 부자 추구해야”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유’ 주제 학술연찬회

소유는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삶의 욕구다. 하지만,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많이 가지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소유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소유를 정견(正見)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밝은사람들연구소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은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를 주제로 제16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소유를 심리학적 관점서 분석한 권석만 서울대 교수의 ‘소유의 심리적 의미’였다.

권 교수는 소유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무수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소유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욕망은 삶을 기본적인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과도할 경우 자신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욕구임을 전제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貪瞋痴)의 구조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탐욕(貪)을 지닌 사람은 과도한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타인과 갈등하며 격렬한 분노(瞋)를 경험한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탐욕의 충족 과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痴)에 바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임을 되짚으며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소유는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면서 “돈과 재물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의 실현에 대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많이 벌어 많이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위해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스님의 말처럼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정신이 깨어있어야 한다”면서 “소유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소유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밝은사람들연구소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은 11월 18일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를 주제로 제16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권석만, ‘소유’ 심리학적 접근
물질적 소유는 한계점 분명해
‘긍정’, 행복 위한 심리적 재산

초기불교 · 禪 등 관점서 고찰도
“수행자 대한 양질 외호 필요”

그러면서 권 교수는 물질적 부자가 아닌 ‘심리적 부자’가 될 것을 대중들에게 제언했다. 그는 물질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추구는 행복을 훼손한다는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심리적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심리적 재산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과 인생에서 마음껏 채광할 수 있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심리적 부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현재 한국불교 수행자들의 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고찰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황금연 동국대 교수는 ‘선가의 존재와 소유’를 통해 출가 수행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소유와 무소유의 문제를 고찰했다. 그는 선가의 수행자라 할 지라도 삶의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현대 사회에서 출가 수행자가 보다 소유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양질의 외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사찰과 교구별로, 나아가서는 종단적으로 수행자를 위한 고른 복지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수행자가 누구나 물질의 소유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수행과 전법에만 매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밝은사람들총서 12) 제하의 도서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가야불교, 융 · 복합적 연구로 실증 필요”

‘가야불교 재조명’ 세미나서 장재진 동명대 교수 주장



가야불교는 사학계에서는 실증되지 않는 역사이다. 특히 가야불교와 허황후의 도래에 대해서는 설화를 역사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비판한다. 진위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야불교에 대해 융 · 복합적 연구로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재진 동명대 교수〈사진〉는 11월 18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가야불교문화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가야불교문화, 역사적 이미지와 현황’에서 가야불교를 둘러싸고 이뤄진 저간의 논쟁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가야불교와 허황후, 아요다야라는 이름을 전제로 확인되는 것들에 대해 ‘설화를 역사로 둔갑시켰다’는 강단 사학계의 비판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사학계는 사료나 유적, 유물이 없으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패망한 나라나 소멸한 문화는 구술로 전해지더라도 전적으로 부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부족을 전제로 형성된 과장된 논리가 가야불교 연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가야불교를 ‘융 · 복합적 방법론’을 통해 실증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가 제안한 융 · 복합적 방법론은 △사관(史觀) 규정 및 인접학문서 사관 보완 △언어학적인 고찰 △현대 과학기술을 통한 실증 등이다.

그는 “특정한 사관과 역사적 방법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종교학 · 신화학 등 인접학문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대는 근현대적 언어적 기술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언어적 고찰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사와 종교사 그리고 지리적 용어의 변천사 등을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스와 대적했던 트로이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최소 수천년간 이어진 10개의 왕국이었음을 밝힌 과학의 힘을 빌려서 새로운 방법의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가야문화와 가야불교문화 그리고 허황후의 도래에 대해 최신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서는 △가야불교의 전래 시기와 전래처 검토(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아시아 해양 문화교류와 불교전파(석길암 동국대 교수) △가야불교 논쟁의 실체와 비판적 검토(윤종갑 동아대) △북발 루투의 관점에서 본 아요디야(한지연 금강대) △전설의 아유타를 찾아서-서역 사료로 새롭게 조명해 본 가야사(한대성 동국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종단, ‘젠더파트너십’ 공동체 돼야”

옥복연 소장, 11월 24일 불광연구원 연찬회서

한국불교가 깨달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젠더파트너십’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사진〉은 11월 24일 불광연구원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주제로 개최한 제34차 학술연찬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옥 소장은 발표문에서 현재 한국불교 여성불자의 현실에 대해 “감소화 · 고령화 · 냉담화라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의 원인에 대해 옥 소장은 “여성불자들은 불교교리는 성평등하지만 종법이 성차별적이고, 교단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분화된 성역할로 순종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여성상을 강요당해왔다. 사회도 변하고, 여성도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 또한 변해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단적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옥 소장은 “성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깨달음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젠더파트너십’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사찰 내 이분화된 성역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법과 제도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단 조직에 비구니 지도자와 여성상급자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할당제 · 성별영향평가사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제시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강사가 ‘초기불교의 재가여성들: 후원자, 수행자, 전법자로서의 역할과 힘’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가 ‘근현대 여성불교 운동단체와 그 주역’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실상화 윤용숙의 삶과 나눔불사’를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 공모

‘불교 현대화 · 국제화’ 주제 내년 1월 2일~2월 28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불교 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세계화를 위한 연구 논문과 저작을 발굴하기 위한 제9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한다.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 관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동양사상 관점서 본 불교사상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학술상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접수 희망자는 지원서를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를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 된다.

교수 저술상은 1000만 원, 논문상은 700만 원이며, 비전임교수 논문상은 500만 원이 수여된다. 석 · 박사 과정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50만원, 동상은 200만원이 주워진다.

심사는 내년 4월 중에 이뤄지며, 시상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깨달음 논쟁 마무리할 겨울 워크숍 열린다

불교학연구회, 12월 23~24일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인도 · 중국 · 티베트 불교의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하반기 3번에 걸쳐 진행된 ‘깨달음 논쟁’을 정리 · 회향하는 자리로, 그간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워크숍 토론자로 그간 발제를 담당했던 김준호(울산대) · 김한상(동국대) · 이필원(동국대 경주캠) · 남수영(동국대) · 김성철(금강대) 등이 참석한다.

참가는 40명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비는 1인 3만원, 2인 5만원.

문의 (010)4313-2122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73호 A9면 ‘百日法問, 현대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에서 ‘百日法問’을 ‘百日法門’으로 바로잡습니다.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2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월 20일 〈3주간〉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수 련 회 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모 · 방한장갑 ·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매주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일 과 표

시간	내 용
5:00	기상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6:20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9:00	불교 강의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1:00	108배
13:00	독서와 사색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17:10	저녁 공양
18:30	저녁 예불

■ 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제9회 원효학술상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철학, 한국 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해 한국 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9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 공모 주제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전제하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 선택 · 1인 1편 응모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 · 박사 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 또는 외국어 저술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 2018년 1월 2일(화) ~ 2018년 2월 28일(수)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3) 접 수 처 : 주소_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대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_(02) 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kbpf@cho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8년 4월 중 (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8년 5월 중 (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